사찰을 수익자로 지정이 가능한 Heungkuk 흥국생명
49재 보험 & 다비 보험
상담 문의 1522-1543

현대불교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570호 HYUNBULNEWS.COM 2026년 3월 18일(음력 1월 30일) 수요일 / 불기 2570년

화마로부터 사찰 수호
불교·정부, 대책 '맞손'

국가유산청·조계종 등 3월 12일 정책간담회

성원 스님 등 현장 의견 전달
소나무 위주 산림에 문제 제기
고운사, 차나무로 보호림 조성
성보 긴급 이운할 '벙커' 필요
유산·지형 등 고려 대책 마련을
허민 "논의 통해 내년 사업 진행"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전각을 지키기 위해 11명의 소방대원이 사투를 벌였습니다. 화재 당시 해당 전각 인근 온도는 섭씨 1000도가 넘었다고 합니다. 대원들의 방화복도 전부 녹았어요. 불태풍이 생기면 인력으로 끌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의성 고운사 총무부장 범종 스님이 전한 2025년 3월 25일 급박했던 고운사 산불 현장에 대한 증언이다. 이날 산불로 고운사가 소유한 사찰림 249ha 가운데 97.6%인 243ha가 소실됐으며 보물로 지정된 '연수전'과 '가운루'도 불에 탔다.

기후위기가 가속화되며 산불 발생 빈도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산지 사찰과 불교문화유산은 가장 큰 위험에 노출돼 있다. 고운사 산불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 아픈 사례다. 똑같은 아픔을 겪지 않기 위해 조계종과 국가유산청 등 정부기관이 머리를 맞댔다.

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은 3월 12일 서울 국립고궁박물관 교육실에서 산불 및 화재에 대비한 불교문화유산 보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국가유산청과 산림청, 소방방재청 등 정부 부처와 불교계, 관련 전문가가 참석해 불교문화유산의 산불·화재 대응 정책 현황과 개선 방향을 공유·논의했다.

특히 조계종에서 총무원 문화부장 성원 스님, 고운사 총무부장 범종 스님, 불교중앙박물관장 서봉 스님, 중앙종회의원 현무 스님이 참석해 일선 현장의 목소리를 전해 눈길을 끌었다.

방화수종 변화 · 방화 벙커 설치

고운사를 대표해 참석한 범종 스님은 초기 진화 시스템 미비와 소나무 위주의 산림이 피해를 키웠음을 지적하며 "사찰 경계 기준 100m이내에는 소나무를 전면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화수(防火樹) 역할을 할 수종을 식재해 보호림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한 스님은 고운사를 비롯한 말사에서는 올 여름부터 방화수종인 차나무를 식재할 계획임을 전했다. 범종 스님은 "차나무는 상록 활엽 저목으로 수분 함량이 높아 내화성이 우수해 사찰 경내 하층 식재에 최적화돼 있다"며 "추운 겨울도 이길 수 있는 품종이 최근 개발됐고, 이를 식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 역시 방화수종 변경에 공감했다. 윤명오 서울시립대 명예교수는 "소나무는 산불 발생 시 복사열을 커지게 하는 수종이기 때문에 방향을 정확하게 잡았다"고 평가했다.

홍광표 동국대 WISE캠퍼스 조경정원디자인학부 명예교수는 "산불 발생시 안전구간이 중요하다. 산불을 한번 끊어줘 골든타임을 만들고 산불이 피해갈 수 있는 길을 만들기 때문"이라며 "산지 사찰은 낮밤으로 계곡류가 불고, 지형도 천차만별이다. 정확한 진단을 통해 안전구간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화유산과 인명이 긴급 대피할 수 있는 벙커(수장고) 설치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고운사 산불 당시 11명의 소방대원이 세면실로 활용되던 공간으로 피신해 화를 피한 바 있다. 성원 스님은 "산지 사찰에는 긴급 재난 발생 시 임시로 대피할 수 있는 안전시설이 필요하다"면서 "이는 사찰에서 다량소장하고 있는 동산문화유산의 긴급 이운 및 수장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서봉 스님은 "권역별 비상 수장공간 지정제를 운영해 긴급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면에 계속



"나도 달마키즈" (사)이웃을돕는사람들(대표이사 호산 스님, 봉선사 주지)이 주최한 제20회 달마오픈 챔피언십 스노보드 대회가 3월 7일 평창 모나용평리조트에서 열렸다. 호산 스님의 원력으로 시작된 달마오픈 챔피언십(일명 달마배)은 20여 년간 스노보더 유소년 선수들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고 수많은 '달마키즈'를 배출했다. 올림픽 메달리스트와 국가대표가 된 '달마키즈'와 꿈나무 선수들이 함께한 이날, '모두의 축제'로 진행된 시상식에서 각 부문 입상자들에게는 총2000만원 상당의 트로피와 상금, 스노보드 용품이 전달됐다.

평창=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본지·총화종, '인권사상 확산' 업무협약

3월 11일 업무협약 체결
20일 총화인권위 발족식
"인권상 안착 위해 협력"

현대불교신문사(대표이사 한명우)와 대한불교총화종(총무원장 혜각 스님)이 불교계 인권사상 확산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한명우 현대불교신문 대표와 총화종 총무원장 혜각 스님은 3월 11일 서울 본지 사장실에서 '인권상 홍보 및 인권사상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불교계 인권사상 확산과 '총화종 인권상'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마련됐다.

'총화종 인권상'은 지역에서 인권 보호와 사회적 약자 지원에 기여한 인물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총화종 총본산이 위치한 영동군의 추천을 받은 이에게 수여된다. 총화종은 인권위원회를 구성해 수상자를 선정하며, 향후 충청도를 비롯한 전국으로 범위를 넓혀갈 예정이다.

한명우 대표는 협약식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사회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총화종에서 인권상을 제정한 것은 사바세계의 어둠을 밝히는 거룩한 불사"라며 "불교언론으로서 인권 수호의 든든한 도반이 돼 세상에 널리 전하겠다"고 말했다.



한명우 대표(사진 오른쪽)와 혜각 스님이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총무원장 혜각 스님은 "종단 체계를 정립한 데 이어 '미래를 여는 포교, 세계를 이끄는 불교'를 표어로 정하고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전개하고자 한다"며 "총화종 인권상 제정과 인권위원회 출범은 그 첫 발걸음으로, 불교계 대표 언론인 현대불교신문과의 협력을 통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총화종은 3월 20일 총본산인 영동 실상사 대적광전에서 총화인권위원회 발족식을 봉행한다. 노덕현 기자

불교계 "중동 전쟁 멈추고 평화로"

불교시민사회단체 성명 발표
성북구사찰연합 발원문 채택

불교계가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전쟁 중단과 평화적 해결을 촉구했다.

불교시민사회단체들은 3월 12일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모든 군사행동을 중단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성북구사찰연합회(회장 원경 스님)도 3월 6일 '인류화합과 전쟁종식을 위한 간절한 발원문'을 채택하고 평화의 길로 나아가길 기원했다.

국내 23개 불교시민사회단체는 '중동의 총성을 멈추고 자비와 평화의 길로 나아가라' 제하의 공동 성명에서 "부처님께서는 '모든 생명은 폭력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한다. 자신을 헤아려 남을 죽이지 말고 죽이게 하지도 말라'고 가르치셨다"며 "오늘날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군사적 충돌과 전쟁 위기는 이러한 인류 보편의 가치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금 중동에 필요한 것은 고통을 멈추는 평화"라며 "대화와 협상,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평화적 해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4면에 계속

여수령 기자

